

# 가축 분노 습격에...무안 빨낙지 '아우성'

### 축산업체 잇따라 살포...비와 섞여 인근 홀통해변 유출 피해 우려 전남도·무안군 오염 고려 않고 허가...주민들 유착 의혹 제기 반발

무안 대표 특산물인 무안 빨낙지가 '분노낙지'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게 됐다. 대형 돼지축산업체에서 밭에 뿌린 돼지분뇨가 빗물 등에 섞여 무안 빨낙지 주 생산지로 유입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전남도와 무안군은 단속은커녕 오히려 돼지분뇨가 섞인 액비(액체로 된 거름)를 살포할 수 있도록 허가까지 내 준 것으로 확인되면서 주민들은 유착 의혹을 제기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7일 무안군에 따르면 지난 1일 오전 무안군 행정청에 있는 S축산은 인근 밭에 액비를 살포했고, 이 액비는 이날 오전에 내리는 비와 섞여 인근 바다인 홀통해변으로 흘러나갔다. 이날 무안군에는 제18호 태풍 '미타'의 영향으로 108mm 안팎의 많은 비가 내렸다. 업체에서 액비를 뿌린 밭과 홀

통해변은 갈대밭을 사이에 두고 맞닿아 있다.

이 같은 사실을 목격한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무안군 담당 공무원은 배설물이 섞인 액비와 빗물과 함께 섞여 공공수역인 홀통해변으로 흘러 들어간 것을 확인하고, 다음날인 2일 무안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앞서 S축산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인해 이동중지명령이 내려진 지난달 25일에 이어 27일에도 액비를 살포한 바 있다.

하지만, 무안군은 살포된 액비의 양과 빗물에 쓸려 내려간 분뇨의 양 등은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대형 업체에서 분뇨를 제재 없이 외부로 유출해 인근 바다와 빨까지 오염시키고 있는 데도, 주민신고를 받고서야 단속에 나선 무안군의 단속 행태를 바라보는 주민들의

시선은 굵지 않다.

S축산이 밭에 뿌린 가축분뇨 퇴액은 반드시 분뇨의 부속(썩혀서 익힘)이 완료된 것만 살포해야 하는 데, 이 같은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기준에 맞지 않는 퇴액을 살포할 경우 악취 발생은 물론 토양과 지하수를 오염시키기 때문에 단속 대상이다. 또 하천과 농수로 등 살포농지 밖으로 액비가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토양이 얼거나 비가 오는 경우, 경사가 45도 이상 되거나 상수원 보호구역, 신고되지 않은 지역에 살포하지 않도록 규정돼 있다.

이 같은 규정에도 무안군은 S축산이 홀통해변과 맞닿아 있는 밭에 퇴액을 살포할 수 있도록 신청하자, 주변 환경 오염이나 유출 등을 고려하지 않고 허가를 내줬다.

이 때문에도 주민들은 S축산과 무안군과 유착의혹 등을 의심하고 있다.

특히 전남에서 단일 농가로는 가장 큰 사육규모인 돼지 6만 5000여 두를 사육하고 있는 S축산 실소유주인 A씨는 2011년

전남도로부터 친환경축산분야 '자랑스러운 전남인'에 선정되는가 하면, 같은 해 12월 정정축산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까지 받은 등 자치단체 등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지역 유지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현경마을의 한 주민은 "S축산은 지난 8월부터 하루에도 수십 차례에 걸쳐 가축분뇨가 섞인 액비를 살포하고 있지만, 군청에 민원을 넣어도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S축산은 악취해결은커녕 최근엔 돈사를 한 동 더 짓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경마을 김지영(47)씨는 "어찌된 일인지 군청이나 경찰 등에 아무리 민원을 제기해도 들은 척도 않는다"면서 "이 같은 환경훼손 행위가 계속될 경우 생존권 차원에서라도 집단 행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업체의 해명을 듣기 위해 A씨에게 수차례 전화를 하고 문자메시지를 남겼으나 답변을 하지 않았다.

/무안·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여자친구에게 성희롱 문자 보냈으며... 남녀 청소년 10여명이 고교생 집단 폭행

남녀 청소년 10여 명이 자신들의 친구(여)에게 성적인 내용의 문자를 보냈으며 남학생을 집단으로 폭행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광주서부경찰은 7일 "또래 남고생이 자신에게 성적인 내용의 문자를 보냈으며 남자친구 등과 함께 집단으로 구타한 A(18)양 등 고교생 10여 명을 특수폭행 혐의로 조사중이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양 등은 지난 6일 밤 9시 45분께 광주시 서구 풍암동의 한 독서실 건물 지하에서 B(19)군을 수차례

때린 혐의다.

고등학교 2학년인 A양은 채팅 앱을 통해 알게된 고교 3학년 B군이 자신에게 성희롱적인 문자를 보냈으며, 자신의 남자친구 등 고교생 10여 명과 함께 B군을 불러내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B군은 성적인 내용의 문자 전송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며 부상 정도는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양과 남자친구 등을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복권방 턴 전과 11범, 고가 차량 훔 때문에 '덜미'

로또 판매점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40대가 본인의 K5 차량에 K7차량의 휠을 장착한 허세 탓에 경찰에 덜미가 붙잡혔다.

7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장모(45)씨는 지난달 30일 새벽 3시에 광주시 북구의 양산동 백모(41)씨의 복권방 잠겨있는 열창문을 흔들며 뜯어 내고 몰래 들어갔다. 이어 장씨는 카운터 금고와 책상 밑 지갑에 든 현금 110만원과 담배 4보루에 복권 출력 단말기까지 훔쳐 달아났다.

전과 11범으로 일정한 직업 없이 생활을 하던 장씨는 대출 빚이 쌓여 생활고를 겪게 되자, 평소 자주 이용하던 이 곳에 현금이 많은 것을 알고 범행을 저지른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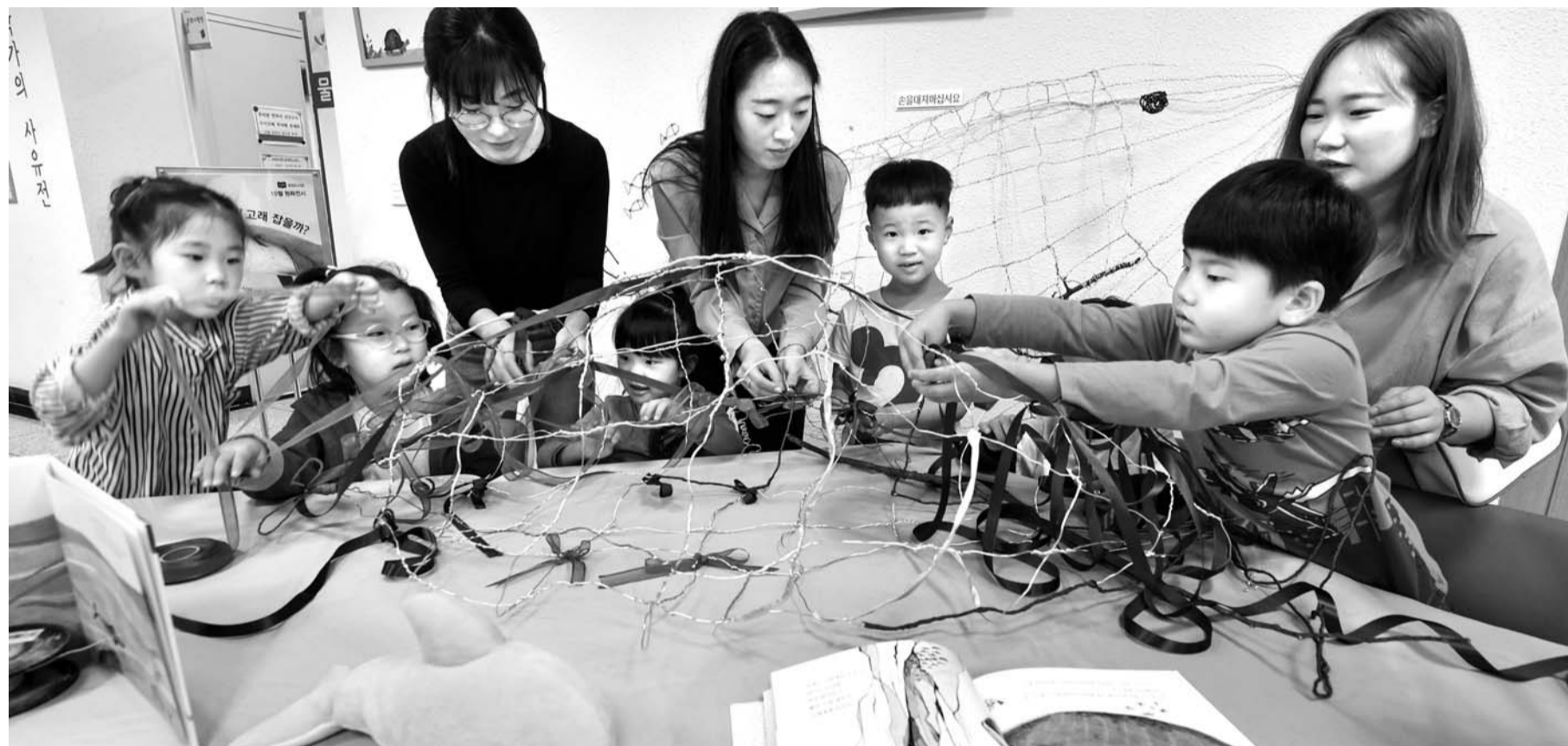
으로 나타났다.

장씨는 범행장소 인근에 주차한 본인의 은색 K5 차량에 순정휠보다 고가인 K7차량의 휠이 장착된 모습이 CC-TV에 찍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장씨의 차량이 선명도가 떨어진 민간 CC-TV가 설치된 골목길 등으로만 주행하다 보니 차량 번호판을 확인할 수 없었다"면서 "다행히 장씨 차량의 휠이 특이해 CC-TV에 찍힌 차량 휠을 보고 추적한 끝에 양산동 원룸가에 주차된 차량을 발견, 검거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장씨를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철사로 고래 만들어요” 7일 광주시 북구 운암도서관 로비에서 열린 ‘아빠, 우리 고래 잡을까?’ 행사에서 참빛어린이집 원생들이 교사들과 철사를 이용해 고래를 만들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서해 조기 어장 불법조업 중국어선 잇따라 나포

서해에 본격적으로 조기 어장이 형성되면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잇따르고 있다. 해양수산부 산하 서해어업관리단은 7일 새벽 2시50분께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북서방 83km 해상에서 기준 규격보다 작은

그물코를 사용한 중국 유망어선 A호(147t, 승선원 17명)를 망포규정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조업 허가를 받은 유망 중국 어선은 그물코 크기

가 50mm보다 작은 어망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A호는 서해상에 조기 어장이 형성되면서 어획강도를 높이기 위해 그물코 크기 40mm 그물을 사용해 조기 1700kg을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목포해경은 지난 6일 오전 11시30분께 신안군 가거도 남서쪽 83.3km 해상에서 중국 어선 B호(148t, 승선원 18명)를

나포했다.

B호도 규정보다 작은 40mm 그물코 어망을 사용해 물고기 480kg을 포획했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오는 16일부터 타당어선 조업활동이 재개되면 중국어선도 증가할 것으로 보여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 비밀번호 적힌 통장 주위 현금 빼낸 동창생 입건

광주광안경찰은 7일 우연히 습득한 비밀번호가 적힌 통장에서 현금을 빼낸 중학교 동창생인 A·B(21)씨를 특수절도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달 1일 오후 7시 35분께 광주시 광산구의 한 은행 현금인출기 위에 C(여·46)씨가 두고 간 통장을 주운 뒤, 1시간 뒤인 오후 8시

45분께 나누시의 한 은행 현금인출기에서 140만 원을 인출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통장 안에 비밀번호가 적혀 있어 손쉽게 돈을 빼낸 것으로 드러났다. 무직인 A씨 등은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머리 손질 빨리 안해준다며 미용실서 행패 부린 여성



○...머리손질을 빨리 해주지 않는다며 미용실에서 행패를 부린 50대 여성이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서 행.

○...7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A(여·51)씨는 지난 6일 오후 3시 15분께 광주시 서구 마북동의 한 미용실에서 머리손질을 받고 있었는데, 자신의 머리를

손질하던 미용사 B(여·47)씨가 다른 일을 하며 시간을 지체한다는 이유로 서랍장을 열어치고 큰소리를 치는 등 행패를 부렸다는 것.

○...A씨는 경찰조사에서 “약속이 있어 빨리 나가봐야 하는데 B씨가 자꾸 다른 일을 핑계로 손질을 미루 순간 화를 참지 못했다”며 선처를 호소.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농업회사법인 나주농산**  
**농산물 저온창고 임대·보관**

■ 콘크리트 신축건물  
20평~23평 등  
(총 400평)

배·사과·양파 등  
임대보관

• 신년서비스 •  
임대료 저렴하게 드림

위 치나주시 문평면사무소 뒤  
연락처 010-3993-3022

전국임야  
**삽니다**  
당일처리. 010-6834-7400

지난 20년간 13,000여명이 수강한 명강의

불황기에 뜨는  
**부동산 경매강의**  
(컨설팅과 재테크)

전임강사 : 정영수 경영학박사  
(부동산 전공)

- 평생교육공로 교육과학부장관상 수상
- MBC - TV 방송국 경제특강
- KBC - 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강의
- 전남대 20년 강의(전대 용봉인상 수상)
- 공무원수원, 중소기업청, 한국전력 등 150여회 이상 특강

특 전

자격 취득 희망시, 공인부동산발달경영관리사, 부동산분양상담사, 부동산권리분석사 등 자격 취득토록 책임지도하며 수료후 모임체 결성하여 평생지도하여 드림

▶ 강의일정 | 2019년 9월 ~ 12월  
(매주) 수요일 19:00~21:00

▶ 강 의 료 | 210,000원(15주) \* 선착순 50명

▶ 조 선 대 평 생 교 육 원

전화 062) 230-7700-2(010-5613-1808)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7년

**7 광주일보**  
창사67주년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키농방**

광고문의 (062) 227-9600  
신문구독 (062) 220-0551  
예향구독 (062) 220-0550

• 지국안내 •

북 구	·동 광 266-1920	·문 흥 266-1960	·북광주 525-3761
	·신 안 222-8171	·안 산 571-7658	·오 치 266-7601
	·용 통 433-1503	·우 산 433-1503	
동 구	·남 광 675-5530	·동 명 222-9054	·동 부 225-6001
	·중 양 222-9054	·충 장 222-8171	
남 구	·남 부 652-0175	·백 운 651-1833	·봉 선 675-5530
	·송 하 675-6605	·진 월 671-7276	
서 구	·광 천 382-5788	·상 무 372-2352	·서광주 369-1625
	·운 천 376-7153	·치 평 376-6511	·풍 입 603-0311
	·화 정 369-1625		
광산구	·운 남 952-1687	·월 곡 959-1920	·침 단 973-2900
	·하 남 959-1500	·광 산 944-0444	